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존감의 매개효과

박 미 하*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20세 이상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기독교인 410명이었으며, 종교성향, 우울,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인의 외재적 종교성향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내재적 종교성향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자존감은 종교성향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재적 종교성향과 내재적 종교성향 모두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존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고,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통해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이에 기독교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내재적 종교성향과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상담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기독교인, 종교성향, 우울, 자존감, 매개효과

* 한영신학대학교 종합상담센터 전임연구원
2013년 11월 12일 접수, 2014년 2월 24일 최종수정, 2월 21일 게재확정

I. 서론

지난 2013년 4월에 ‘목적을 이끄는 삶’의 저자로 잘 알려진 릭 워렌(Rick Warren) 목사의 아들이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려오다가 자살을 한 사건이 보도(뉴스엔, 2013. 4. 7) 되어 기독교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이 사건이 주는 충격의 핵심은 ‘기독교인이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울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발병할 수 있는 인류보편적인 질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은 우울에 걸릴 수 없다는 사고는 버려야 할 편견이다.

하지만, 비기독교인과 달리 신앙이라는 차별화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우울에 대해서는 기독교상담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울증에 대해 혼란을 야기 시키는 기독교 신앙의 유무에 따른 관점이 아니라 어떠한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히스패닉 크리스천 리더십 컨퍼런스(NHCLC: The National Hispanic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대표인 사무엘 로드리구에즈(Samuel Rodriguez) 목사도 종교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단순히 종교의 유무만으로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서는 안되고, 종교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동기는 행동을 유발하는 근원으로 개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해 주는 변인이기 때문이다(크리스천투데이, 2013. 4. 9).

종교성향은 기독교인의 신앙적 동기를 설명해 주는 변인으로 외재적 종교성향과 내재적 종교성향으로 구분된다. 외재적 종교성향은 자신의 목적이나 이익을 얻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종교를 수단화하는 것이며, 내재적 종교성향은 종교적 신념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종교를 삶에서 생활화하는데 그 동기가 있다(Allport, 1966: 447-457). 기독교에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전인격적인 변화가 삶의 전 행동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로 볼 때, 외재적 종교성향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그들의 정신건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올포트(G.W. Allport)와 로스(A.M. Ross) (1967: 432-443)도 외재적 종교성향의 신자들은 종교를 기복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형식화된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재적 종교성향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열망, 확신과 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본질적인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인간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현실적 필요에 집중하는 기복신앙을 가지게 한다(현승건, 2012: 291). 대중매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기독교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사건들도 결국은 신앙적 동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외재적 종교성향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 신앙을 추구하기보다는 인간의 만족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성공과 명예를 지향하는 기복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재적 종교성향에서 비롯된 기복신앙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원망, 분노 등 부정적 정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삶에 적용하여 생활화하고 체험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종교성향은 기독교인의 신앙적 동기로 그 유형에 따라 심리적인 면에서도 다른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내재적 종교성향은 우울과 부적 상관이 있고, 외재적 종교성향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Genia and Shaw, 1991: 274-283) 종교성향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여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해 그 영향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또, 우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존감은 종교성향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중요하고 의미있는 타인들로부터의 존중, 수용, 지지와 자신의 성취 경험 등에 의해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다. 반면, 성경적 자존감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자존감의 완성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수용 받는 정도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 기독교인의 자존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수용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외재적 종교성향의 기독교인은 교인들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그들로부터 사회적 인정과 지위 등의 목적을 취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계속적인 긍정 피드백을 통해 자존감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반면, 내재적 종교성향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를 근거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성경을 실천하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자존감을 완성해 나간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에 따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기독교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목적과 의미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부정적인 자존감을 가진 기독교인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보다는 타인의 평가에 더 민감해서 조그만 부정적 피드백이나 거절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자존감은 우울을 예측하는 주요변인으로 나타나서(김민정·이동귀, 2008: 289-304; 이철호 외, 2009: 433-488)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이 우울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기독교 유무에 따른 연구에 제한되어 있고, 신앙적 동기인 종교성향과 우울, 그리고 그 과정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인에 대한 실증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자존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경험적 검증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목회 현장 및 기독교상담 장면에서 기독교인의 우울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내담자의 신앙 동기를 설명해 주는 종교성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존감이 우울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주요한 매개변인임을 예측하여 상담의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내재적 종교성향의 사람들은 비합리적 신념 수준이 낮고(김재석, 2008: 21-22), 삶의 의미와 목적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한재희, 2000:48-51) 부정적 사고와 절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종교성향은 효과적인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기독교인의 종교성향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종교성향

종교성향은 개인의 종교적 태도와 동기에 대한 개인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종교적 실천에 대한 일관성이나 강도라고 할 수 있다(김은희, 2006: 13). Allport와 Ross는 같은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개인의 종교적 동기와 성향에 따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Allport and Ross, 1967: 432-443). 그리고 종교성향을 방향과 목적에 따라 외재적 종교성향과 내재적 종교성향으로 구분하였다.

외재적 종교성향은 자신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종교를 수단으로 삼아 행복, 위안, 친교, 지위 등을 얻으려는 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종교적 신념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 형식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현실적인 가치관과 이기적인 성향을 보이며, 종교를 수단으로만 보기 때문에 종교가 가진 본래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Allport, 1966: 447-457). 반면, 내재적 종교성향은 종교적 신념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종교를 삶에서 생활화하고 있는 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 때문에 종교가 삶을 바라보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점이 되며, 교리에 관심을 가지고 규칙적이고 경건한 종교생활을 하며 이타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개념에서 볼 때, 기독교인의 외재적 종교성향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독교 신앙을 수단으로 삼아 신앙과 삶이 분리된 형식화된 신앙태도를 의미하며, 내재적 종교성향은 기독교 교리를 내면화하고 삶에 적용하여 신앙을 생활화하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외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향한 욕구 자체가 자신의 욕구충족이나 자기중심적인 경향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독교를 자기욕구의 분출 통로로 사용한다. 반면,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기독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여긴다. 그리고 신앙과 믿음, 교리,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과의 내면적 만남 등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음으로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대처한다(김안식, 2010: 67).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향에 따라 기독교 신앙이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올포트와 로스도 종교성향은 성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Allport and Ross, 1967: 432-443). 외재적인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은 심리적으로 미성숙하고 부적응을 많이 나타내며, 내재적인 종교성향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더 성숙하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내재적 종교성향은 성숙된 종교 감정인 죄책감과

관련이 있었고, 외재적 종교성향은 미성숙하고 병리적 종교 감정인 수치심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옥 외, 2009: 469-486). 종교성향이 성숙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종교가 개인의 역경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하나의 대처방식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전혜정, 2003: 171-172). 내재적 종교성향의 사람들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을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바라보고 이해함으로서 어떤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외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심수명, 2006: 199).

제석봉도 종교성향에 따라 성숙의 정도를 나타내는 자아분화도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통해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종교성향에 따라 성숙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하였다(제석봉, 1996: 121-134). 따라서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영향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우울

우울(depression)은 정서적인 낙담과 심리적 위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슬픔이나 침울한 기분이 조절되지 않아 다양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비난과 부적절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나 즐거움을 상실하고 슬프거나 공허한 기분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또한 신체적으로는 체중과 식욕의 변화, 불규칙한 수면을 경험하며, 심할 경우에는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구체적 계획이 없는 자살 사고 또는 시도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우울은 유전을 포함하는 생물학적 요인에서부터 심리사회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생물학적 관점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세르토닌 호르몬의 부족이나 유전요인에 의해 우울이 발생한다고 본다. 심리학적 관점은 정서, 인지, 행동에 따라 상실감, 부정적인 왜곡된 사고, 무기력감 등을 우울의 원인으로 본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우울은 영적인 요인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분리로 인해 우울이 발생한다고 본다. 권면적 상담이론의 아담스(J.E. Adams)는 기독교인의 우울은 죄에 의해 유발된다고 보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울증이 치료된다고 하였다(Adams, 1989: 47) 반면, 크랩(L.J. Crab)은 인간의 기본욕구인 중요성과 안전이 위협 당했을 때 정서의 왜곡이 일어나면서 우울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가치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 수용을 받을 때 정서의 왜곡으로 유발된 우울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하였다(Crab, 1982: 115). 이외에도 교회공동체에 충성하는 동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취욕구와 인정욕구에 의해 이루어질 때 분노가 담긴 우울이 기독교인에게 발생하기도 한다(지영옥, 2013: 51).

이와 같이, 기독교인의 우울은 비기독교인과 달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와 그 관계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실현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해 죄책감을 가지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헌신할 때 우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우울은 기독교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동기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종교성향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효과

종교성향은 개인의 종교적 태도와 동기에 대한 개인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성향에 따라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우울의 원인을 설명하는 절망감 이론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종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외재적 또는 내재적 종교성향의 특성은 우울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절망감이란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결과의 발생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와 이러한 결과의 발생에 대한 무력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울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먼저, 외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행복, 위안, 친교, 지위 등과 같은 외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의 획득과 상실이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내재적 종교성향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극복해 나가므로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지 않는다. 이로 볼 때, 외재적 종교성향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가치 때문에 그 획득과 상실에 대해 더 우울함을 경험

할 가능성이 높고, 내재적 종교성향은 추구하는 가치가 오히려 환경을 극복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우울을 적게 경험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한내창(2002: 177)은 종교에 대한 애정이 적고 어쩔 수 없이 종교에 몰입할 때, 우울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교회에 출석하거나 교회 봉사활동을 하는 외재적 종교성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신앙을 가진 중년여성들의 내재적 종교성향이 부정적 정서와 부적상관이 있으며(조영주 외, 2012: 211-212). 종교성향과 불안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조혜윤 · 손은정, 2008: 783; 제석봉, 1996: 121-134). 종교성향에 따라 기독교인의 우울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종교성향과 우울의 관계 연구는 물론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존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고, 정서, 판단, 태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기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Coopersmith, 1967: 6). 즉,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자기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존감의 형성은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수용 받는 정도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타인의 견해를 반영한다. 따라서 자존감은 그 정도에 따라 자신의 가치 평가 근거를 내부 또는 외부에 두는 특성을 가진다. 자존감의 근거가 내부적 특성을 가질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에 두는 것이며, 외부적 특성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의견이나 사회, 경제, 학력과 같은 물리적 환경이나 소유에 따라 가치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인의 자존감은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수용 받는 정도에 따라 형성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수용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성경에 기초한 자존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병들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겨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기에 존귀하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이다. 즉, 기독교인의 자존감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로서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여 자신의 가치, 능력,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오윤선, 2012: 224). 따라서 기독교인의

자존감의 근거가 내부적일 경우에는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자체에 두는 것이며, 외부적 특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교회공동체로부터 주어지는 인정이나 성취 등의 정도에 따라 자신의 가치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복자와 강경아(2001: 967-977)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자존감은 상위존재자와의 관계성의 정도가 클수록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자신에 대한 가치감과 존중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자존감은 그 수준에 따라 심리적 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기독교인의 낮은 자존감은 삶의 순수한 동기를 파괴하고,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사장시킬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초래하면서 신자의 참된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박노권, 2001: 114). 또, 낮은 자존감은 우울과 정적상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민정·이동귀, 2008: 289-304), 긍정적 자존감은 우울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내창, 2002: 171-173). 그리고 자존감은 여러 우울과 관련된 연구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최미례·이인혜, 2003: 363-383; 송영희·이원주, 2010: 553-573) 기독교인의 종교성향과 우울과의 관계에서도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기독교인 600명을 임의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600부의 설문지 중 466부를 회수하였고, 이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설문지 56부를 제외하고 총 41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을 살펴보면, 전체 기독교인은 총 410명으로 이중 남자가 151명, 여자가 259명이었으며, 연령은 20대가 207명, 30대가 67명, 40대 이후가 136명이었다.

2. 측정 도구

(1) 종교성향척도

종교성향척도는 Allport의 이론을 근거로 제석봉과 이성배(1995: 245-280)가 개발한 한국판 종교성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6문항으로 외재적 종교성향 13문항과 내재적 종교성향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외재적 종교성향 문항과 내재적 종교성향 문항의 점수를 따로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총점이 높을수록 그 성향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외재적 종교성향의 신뢰도는 .75이었고, 내재적 종교성향은 .91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외재적 종교성향과 내재적 종교성향이 각각 .86이었다.

(2) 자존감 척도

자존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제(1974)가 번안한 것을 이영자(1996)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긍정적 자존감 5문항과 부정적 자존감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자존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영자(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82이었다.

(3) 우울척도

우울척도는 최태영, 이길홍, 민병근(1985: 533-543)이 번안한 Zung의 자기평가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은 정동적, 생리적, 심리적 우울성향의 세 범주로 나뉘어 증상과 동일한 질문 10문항과 증상과 반대되는 질문 10문항으로 총 20문항이며, Likert 4점 척도로 평정된다. 증상과 반대되는 긍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번안 당시의 신뢰도는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1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8.0을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 방법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종교성향, 자존감, 우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을 하였다. 측정변인의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종교성향이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종교성향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 회귀분석(The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총 3 단계의 조건이 충족될 때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1단계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 및 매개변인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2단계보다 유의미하게 감소하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한 후에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소벨(Sobel) 검증(Sobel, 1982: 290-312)을 하였다.

IV. 연구의 결과

1.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각 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외재적 종교성향은 우울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r=.33$), 자존감($r=-.26$)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내재적 종교성향은 우울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r=-.44$), 자존감($r=.30$)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자존감과 우울은 높은 부적 상관이

있었다($r=-.62$).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1〉 종교성향, 자존감, 우울의 상관관계

| 변인 | 외재적 종교성향 | 내재적 종교성향 | 자존감 | 우울 |
|-----------|----------|----------|-------|------|
| 외재적 종교성향 | 1 | | | |
| 내재적 종교성향 | -.39* | 1 | | |
| 자존감 | -.26* | .30* | 1 | |
| 우울 | .33* | -.44* | -.62* | 1 |
| <i>M</i> | 2.31 | 4.08 | 2.98 | 2.48 |
| <i>SD</i> | .76 | .77 | .45 | .39 |

* $p<.001$

(2)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종교성향 중 외재적 종교성향($\beta=.18$, $p<.001$)은 기독교인의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재적 종교성향($\beta=-.37$, $p<.001$)은 우울에 부적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기독교인의 외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지고,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은 우울에 대해 22%의 설명력을 가지며,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면 내재적 종교성향이 외재적 종교성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내재적 종교성향이 우울을 감소시키는 신앙동기임을 알 수 있다.

〈표 2〉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SE | β | t | $R^2(Adj-R^2)$ | F |
|------|----------|------|-----|---------|----------|----------------|----------|
| 우울 | 외재적 종교성향 | .09 | .02 | .18 | 3.77*** | .22(.22) | 58.73*** |
| | 내재적 종교성향 | -.19 | .02 | -.37 | -7.86*** | | |

*** $p < .001$

2. 종교성향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 검증

종교성향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먼저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Sobel Test를 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먼저, 외재적 종교성향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존감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외재적 종교성향은 매개변수인 자존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beta = .26, p < .001$). 2단계에서도 독립변수인 외재적 종교성향은 종속변수인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beta = .33, p < .001$). 그리고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외재적 종교성향과 매개변수인 자존감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매개변수인 자존감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beta = .58, p < .001$), 외재적 종교성향도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 = .18, p < .001$) 그 영향력이 2단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단계의 설명력($R^2 = .11$)에 비해 3단계의 설명력($R^2 = .42$)이 매우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Sobel Test를 한 결과에서도 유의수준 $p < .001$ 에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z = 5.064$) 외재적 종교성향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존감이 부분매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독교인의 외재적 종교성향이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도 미치지만, 자존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반면, 내재적 종교성향은 1단계에서 자존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beta = .30, p < .001$), 2단계에서도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beta = .44, p < .001$). 그리고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자존감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beta = .54, p < .001$), 내재적 종교성향도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beta = .28, p < .001$) 그 영향력이 2단계보다 줄어들었고, 설명력도 2단계($R^2 = .20$)보다 3단계($R^2 = .40$)에서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를 한 결과에서도 유의수준 $p < .001$ 에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z = 5.744$) 내재적 종교성향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존감이 부분매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독교인의 내재적 종교성향이 우울에 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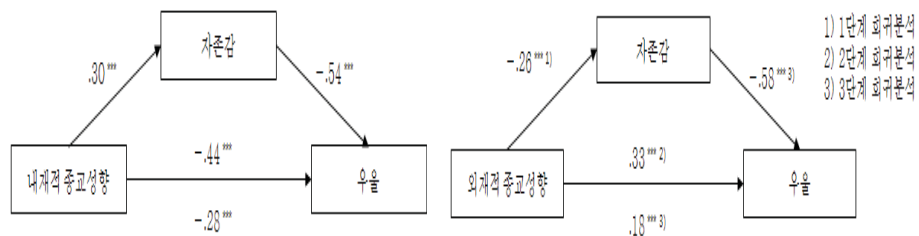
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존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은 낮아지지만 자존감이 개입될 때 우울을 더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표 3〉 종교성향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

| 독립변수 | 우울 | | | | 매개조건충족 | | | | VIF | Dubin-Watson |
|-----------------|---------|-----------|-------|-----------|--------|---|---|---|-------|--------------|
| | β | t | R^2 | F | 1 | 2 | 3 | 4 | | |
| 외재적 종교성향 | | | | | | | | | | |
| 1단계 | -.26 | -5.36*** | .06 | 28.69*** | ○ | | | | 1.000 | 1.737 |
| 2단계 | .33 | 6.96*** | .11 | 48.40*** | | ○ | | | 1.000 | 1.874 |
| 3단계(독립) | .18 | 4.54*** | .42 | 146.30*** | | | ○ | | 1.070 | 1.933 |
| 3단계(매개) | -.58 | -14.78*** | | | | | | ○ | | |
| 내재적 종교성향 | | | | | | | | | | |
| 1단계 | .30 | 6.39*** | .09 | 40.77*** | ○ | | | | 1.000 | 1.727 |
| 2단계 | -.44 | -10.00*** | .20 | 100.01*** | | ○ | | | 1.000 | 1.918 |
| 3단계(독립) | -.28 | -7.37*** | .46 | 173.88*** | | | ○ | | 1.100 | 1.986 |
| 3단계(매개) | -.54 | -14.11*** | | | | | | ○ | | |

*** $p < .001$

위의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종교성향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

V. 논의 및 결론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자존감의 매개역할을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재적 종교성향은 우울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자존감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내재적 종교성향은 우울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자존감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자존감과 우울은 높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재적 종교성향은 기독교인의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내재적 종교성향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기독교인의 외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지고,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우울과 부적 상관이 있고, 외재적 종교성향이 정적 상관이 있었다는 선행연구들(한내창, 2002: 177; Genia and Shaw, 1991: 274-283)과 같은 결과이다. 이는 내재적 종교성향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활사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긍정적인 대처기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의미를 찾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외재적 종교성향의 사람들은 신앙의 동기가 행복, 위안, 친교, 지위 등과 같은 외적 가치에 있기 때문에 교회공동체에서 그 기대가 계속적으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가치상실에 따라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기독교인의 우울이 단순히 기독교의 유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동기를 나타내는 종교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종교성향을 통해 신앙 동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재적 종교성향의 내담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앙 동기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통해 환경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부정적인 생활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존감은 외재적 종교성향과 내재적 종교성향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존감이 우울과 관련된 연구에서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송영희와 이윤주(2010: 553-573) 및 최미례와 이인혜

(2003: 363-38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기독교인의 외재적 종교성향은 우울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존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외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우울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외재적 종교성향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신도들을 통해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취하는데 관심이 있어서 타인의 평가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나 사소한 거절에도 쉽게 상처를 받으면서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고 우울에 쉽게 취약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교회 공동체내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기보다 교인들과의 교제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우 소위 시험에 들면서 갈등이 유발되고 교회출석을 하지 않거나 우울성향을 보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로 볼 때, 외재적 종교성향의 기독교인들은 타인의 평가에 따라 자존감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 수준에 따라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내재적 종교성향은 우울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존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기독교인의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우울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적 종교성향의 기독교인은 타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의식하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지 않고 성경에 기초한 확고한 신앙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내재적 종교성향의 기독교인은 성경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인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한다. 즉,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해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게 되면서 우울이 감소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내재적 종교성향이 우울을 감소시키기도 하지만, 자존감이 개입될 때 우울을 더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종교성향을 통해 신앙동기를 점검하는 전략과 함께 자존감을 증진 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기독교유무와 정신건강에 대한 비교연구는 있었지만,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인에 대한 실증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과 자존감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검증함으로써 기독교유무보다는 신앙적 동기가 우울에 중요한 변인임을 밝히고, 치료적 개입을 할 때 자존감이 효과적인 매개변인임을 제시하였다. 특히 종교성향에 대한 연구는 기독교계의 분쟁, 세습, 헌금과 관련된 비리 그리고 기독교 연예인들의 우울증과 자살 등으로 인해 기독교가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성경을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하나님 체험 중심의 성숙한 종교성향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교회출석과 교회봉사를 하는 외현적인 신앙에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통하여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진실한 회개와 전인격적인 변화, 그리고 성숙을 도모하는 자기성찰 교육을 통해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기독교인 전체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종교성향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신앙연수, 세례유무, 예배참석, 경건 훈련 등의 신앙적 특성이 주는 영향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만을 살펴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변인 외에 영적 안녕감과 같은 기독교인의 긍정변인에 미치는 영향력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기독교인의 우울성향이 타종교에 비해 높다는 보고들도 있어서 후속연구에서는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이 단순 종교성향 때문인지 외적인 다른 환경적, 교회 교육의 내용, 제도, 특성의 개입 혹은 다른 매개변인이 작용하는지에 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민정·이동귀 (2008). “대학생의 자존감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승인욕구의 중재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3), 289-304.
- 김안식 (2010). “수형자의 종교활동 및 성향이 정신건강과 수용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김은희 (2006). “청소년의 종교성향과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김재석 (2008). “대학생의 내재적-외현적 종교성향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 수준의 차이.” 『상담학연구』, 9(1), 15-28.
- 박노권 (2001). “낮은 자존감이 신앙에 미치는 영향과 치유방안.” 『신학과 실천』, 4, 107-124.
- 송영희·이윤주 (2010). “대학생의 비합리적 신념과 우울: 목표안정성과 자존감의 매개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553-573.
- 송옥·김윤주·한성열 (2009).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에 따른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4), 469-486.
- 심수명 (2006). “전인성숙을 위한 제자훈련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 종교성향과 동기이론을 중심으로.” 『국제신학』, 8, 195-242.
- 오복자·강경아 (2001). “영성체험: 기독교인 중시의 현상학적 접근.” 『대한간호학회지』, 31(6), 967-977.
- 오윤선 (2012). “말씀묵상기도를 통한 용서 프로그램이 기독교 청소년의 용서경험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복음과 상담』, 19, 217-244.
- 이영자 (1996).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이철호·정정숙·이민규 (2009). “부모-청소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2), 433-488.
- 전혜정 (2003). “노년기 적응과 종교성.” 『인간과 문화연구』, 8, 161-192.
- 제석봉·이성배 (1995). “종교성향검사(ROS)의 개발과 종교적 성향이 적응 및 종교적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종교연구』, 11, 245-280.
- 제석봉 (1996). “외재적-내재적 종교성향과 불안 및 부적응과의 관계.”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53(1), 121-134.
- 조영주·이지연·장진이 (2012). “신앙을 가진 중년여성의 내재적 종교성향이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용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2), 203-225.
- 조혜윤·손은정 (2008). “종교성향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종교적 대처와 낙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773-793.
- 지영옥 (2013). “성경적 상담을 통한 기독교 중년 여성들의 우울증 회복과정: 근거이론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 최미례·이인혜 (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63-383.
- 최태영·이길홍·민병근 (1985). “학생 청소년의 ABO 혈액형과 우울성향간의 관계분석.” 『신경정신의학』. 24(4). 533-543.
- 한내창 (2002). “종교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6(3). 157-182.
- 한재희 (2000). “Logotherapy와 기독교인의 종교성향.” 『신학과 실천』. 3. 35-59.
- 현승건 (2012). “한국 개신교 교회의 갱신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의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신앙과 학문』. 17(1). 287-322.
- Adams, J. E. (1985). *Competent to Counseling*. 정정숙 역 (1989). 『목회상담학』. 서울: 총신대 출판부.
- Allport, G. W. (1966). “The religious context of prejudic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 447-457.
- Allport, G. W. and Ross, J. M. (1967).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32-443.
- Baron, R. M. and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Crab, L. J. (1977).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성경적 상담학』. 정정숙 역 (1982). 서울: 총신대 출판부.
- Genia, V. and Shaw, D. (1991). “Religion intrinsic-extrinsic orientation and depression.”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2. 274-283.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 (검색일 2013.9.12) 뉴스엔 2013. 4. 7 일자 “릭워렌 아들 자살, 우울증 자살충동 끝내 못 이겨.”
-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 (검색일 2013.9.12) 크리스천투데이 2013. 4. 9 국제면. “릭 워렌 목사 아들 죽음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 고조.”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Religious Orientation of Christians on Depression: Verification of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Mi-Ha Bak(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igious orientation of Christians on depression and verify if self-esteem has mediating effect in the process of religious orientation affecting depression. As for the participants of study, they were 410 Christians over the age of 20 attending church, and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by using religious orientation, depression and self-esteem scal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of Christians was having positive effects on depression, and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was having negative effects on depressio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orientation and depression. Namely, both 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had direct effects on depression but they also had indirect effects through the mediation of self-esteem. As for the result of this study,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ffect on depression according to the religious orientation of Christians, and it implies that depression can be reduced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ccordingly, the need to search for counselling strategy was discussed to enhance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self-esteem to reduce the depression of Christians.

Key words: Christians, Religious Orientation, depression, self-esteem, mediating effect